**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체인지 메이커가 되고픈,**

**김주연입니다.**

1. **경제경영에서 개발자로 전향한 이유**

저는 21살까지 베트남 국제학교에서 경제경영 공부를 하며 한국의 기술력과 베트남의 성장 잠재력을 합친 사업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언어를 할 줄 앎은 단순히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음을 넘어 그 나라 사람들과의 커넥션과 더 넓은 사업 기회를 뜻하기에 학부 공부 이외에도 하루 최소 4시간씩의 언어 공부를 병행하여 하노이사범대학교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베트남어로 국제무역 수업을 듣고 베트남어 검정 시험에서 외국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꾸준한 영어 공부를 통해 국제통·번역협회에서 ITT 비즈니스 영어통번역 자격증을 취득 및 꾸준한 통·역번역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개발자로 전향하게 된 계기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약 2년 전 EO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에서 다른 실리콘 밸리 엔지니어 인터뷰에서 “개발자”의 성장력과 세상에 내 가치를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도구라는 잠재력에, 정해진 틀에 갇혀 있지 않고, 세상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자신의 도전과제로 여긴다는 매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호주 학교로 편입 후 정보시스템 학과로 전과하여 IT 기술을 활용한 전략적인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접근법과 함께 컴퓨터 공학 기초 및 프로그래밍을 공부하였고 학부 내 상위 1%의 성적으로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가는 길이 구불구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제가 가진 모든 능력과 교훈이 이끌어주는 최종 목적지는 같을 것이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많은 공부를 하였습니다. 새로운 도구를 배우는 것을 재미있어 하고 하루하루 어제보다 성장한 내 모습을 보는 게 재미있습니다. 저 또한 세상에 발자취를 남기는 개발자/리더가 되려 합니다.

1. **관심있는 개발 분야**

저는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모든 과정을 즐기고, 그 원동력으로 다양한 개발 분야를 접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관심 있는 분야는 백엔드 개발과 데이터 엔지니어링입니다. 백엔드 개발에 관심이 있는 이유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고 데이터를 추출하여 개발하는 과정을 통해 작은 변화를 통해서도 비용을 낮추거나 시스템 성능에 큰 변화를 만드는 등의 임팩트를 만들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데이터 내 숨겨진 가치와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데이터 분석에도 관심이 있는데, 다양한 인턴 및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서 느낀 점은 모델의 높은 정확도를 위해 최적의 모델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저에는 데이터 엔지니어링이 사용되는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하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 및 활동

#### 첫 쇼핑몰 외주 개발

#### 올 초 컴파운드 버터 및 유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회사 발린느에서 첫 웹 쇼핑몰 외주 개발을 맡아 풀스택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손쉬운 웹사이트 빌더 서비스(Shopify, 아임웹, Wix.com etc) 서비스만으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차별적인 기능들을 추가하고 싶었기에, 간편 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및 간편 결제 (카카오톡, 네이버) 기능, 웹 사이트 내 질의 이메일 직접 전송 기능, 세 제품 관련 게시물 포스팅 알람 기능, 저장 주소 가져오기 및 간편 업데이트 기능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쇼핑몰 개발에 가장 적합한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하는 Django를 공부하고 공부 내용을 바로 적용해가며 올 초 석 달간 주말 하루를 제외한 모든 날 최소 9-12시간씩 몰두하여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차후 웹사이트의 안전한 유지 보수를 위해 MVT 패턴을 사용하였고, 풀 스택 개발을 처음 진행하며 유저 사용성부터 백엔드 트랜잭션 로직까지 넓은 범위를 아우르는 개발 경험을 다뤄 볼 수 있었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프로젝트는 새로운 프레임워크(ReactJS, TypeScript)를 공부하며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을 계속해서 발견 중이기에 계속해서 업데이트 중입니다.

#### 데이터 인턴

작년 하반기 차별적인 키토크 추천 기술로 유저의 검색 경험을 높여주는 마이셀럽즈에서 3개월여간 데이터 인턴 활동을 하며 천만 건 이상의 데이터 수집 및 자동 판단 모델을 생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기존까지는 동일한 화장품 A==A’를 동일시 판단하는 과정은 반복적으로 진행되어왔고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자동화하기 위하여 콘텐츠 제작자 혹은 목적성(판매용/기술용)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는 화장품 타이틀의 불용어를 패턴화하고 전처리하는 알고리즘과 Mecab, TF-idf 활용 모델링, 화장품 각도 혹은 세트 상품을 스스로 판별할 수 있는 이미지 모델을 생성하였습니다. 단 3명의 팀이 충분치 않은 자원으로 수백만 건의 데이터를 수집부터 모델링까지 3개월 안에 마무리 짓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업무를 최단 시간 안에 끝내야 하는 스타트업 특성상, 오후 10시 퇴근 (건물 클로징 타임), 퇴근 후 및 연휴 근무도 마다하지 않고 맡은 업무를 끝까지 온 힘을 다해 마무리 지었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도 피치 못한 문제들로 유실을 피할 수는 없었고, 유실이 발생할 수 있는 수십 가지의 경우의 수를 생각하며 재사용성이 높은 코드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객체지향프로그래밍의 다형성, 객체, 캡슐화 원칙을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다양한 패턴으로 묘사되는 화장품을 텍스트만으로 동일한 제품으로 그루핑함에 있어 큰 어려움을 겪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불용어 패턴을 적립 및 반복적으로 출현하는 불용어 리스트를 추출하여 정규표현식을 표현해 삭제, 비교 대상군을 브랜드 단위로 줄여 제품 매칭률을 높이는 방법 등 각각의 예외 케이스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법을 메뉴얼화하여 전처리를 통해 모델 정확도를 약 5% 향상시키는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1.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나만의 강점**

* 글로벌 리더로서의 자질

저는 호주, 베트남, 한국을 걸쳐 같은 또래에 직접 학비를 벌어 유학하는 학생들을 보며 삶을 주도적으로 계획해 나아가는 친구들, “Do the right thing in a right way”(옳은 일을 옳은 방식으로)라는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른 나이에 사업에 뛰어들며 많은 돈을 번 친구들을 보며 절대적인 개발 실력을 넘어 비주류 기술로라도 숨겨진 니즈에 창의적으로 접근하고 다각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모습 등 셀 수 없이 많은 사람과 만나고 대화하고 경험하며 넓힌 다각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어와 영어를 능통하게 글로벌 시장을 파악하는 도구로 사용할 줄 알고 더 큰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헝그리정신 (Fire in the belly)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나를 목표로 살아갑니다. 헝그리 정신으로 목표한 바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뤄내고, 부족하면 어떻게든 배워서 해냅니다. 첫 웹 쇼핑몰 개발 프로젝트 또한 Django를 공부하며 배운 내용을 바로바로 적용해가며 주6일 매일 9-12시간씩 작업하며 완성했고, 인턴 활동 중 새로운 자연어 처리 모델과 필요한 패키지들로 그때그때 학습하여 좋은 결과를 끌어내었습니다. 비전공자로써 개발 공부를 하다 보면 컴퓨터 공학 지식이 필요한 순간이 찾아오고, 그때 비전공자를 위한 이해할 수 있는 IT 지식, Clean code (공부 중), 패스트캠퍼스 컴퓨터 공학 전공 필수 강의를 바로 공부하며 부족한 지식을 채워갔습니다. 더 성장하고 싶은 욕구와 성실함이 합쳐 어려운 새로운 기술을 빨리 배울 수 있고 또 적용할 수 있습니다.